# 제국 일본의 식민지 도시 건설과 전통 사회의 변화*

## - 유곽형성과 군산지역 유곽문화의 정착 -

**이정욱(李正旭)****
jukkoo@hanmail.net

Contents

Ⅰ. 서론
Ⅱ. 전통의 아이콘, 섹슈얼 아이콘
Ⅲ. '쌀의 군산'과 일본인, 유곽
Ⅳ. 신흥동 일본인 유곽
Ⅴ. 결론

## Ⅰ. 서론

1876년 강화도에서 조인된 조일수호조규(朝日守護條規)에 의해 조선은 일본에게 부산 에 이어 원산(1876)과 인천(1883)을 개항하게 된다. 일본에게 부산이 경제적인 이유였다면 원산은 러시아 견제를 위한 군사적 목적, 인천은 정치와 군사적인 이유가 컸다 할 수 있다. 개항 이후 청일전쟁,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조선에서 그들의 지위권의 확보를 위해 통감부를 설치하며 본격적인 조선의 식민지화 작업에 들어갔다. 1910년 조선의 국권을 강탈한 일본은 식민 통치를 원활히 진행시키기 위해 철도의 신설, 통신, 공장을 비롯한 산업시설을 중심으로 조선의 근대화를 차근차근 이행시켰다. 소위 일본에 의한 '조선의 근대화론'으로 대표되는 영역이외에 그들이 개항지를 중심으로 재빠르게 이식해 나간 것이 유곽이다.

기생으로 대표되는 조선의 관비제도가 기예(技藝)를 중심으로 관이 관리 운

* 본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4S1A5B8063617)
**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연구교수, 식민지 문화(연극, 영화, 지역사).

영했던데 비해 일본의 유곽은 기예와 함께 매춘을 공공연히 묵인하던 곳이었다. 유곽은 1902년 7월 부산을 시작으로 인천(1902.12), 원산(1903), 경성(1904), 군산(1907), 전주(1909?) 등에서 특별요리점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었다.[1] 이후 1916년 조선총독부에 의해 대좌부창기취체규칙(貸座敷娼妓取締規則)의 시행으로 인해 공창제가 도입되며 전 지역에 유곽이 설치되었다. 1945년 일본으로부터의 해방된 이후에도 일제의 잔재인 유곽은 그 자리에 뿌리 깊게 남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0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일제 강점지 유곽에 대한 연구는 일본의 식민지 조선의 지배 정책 속에서 유곽(기생)의 위치 및 역할의 대한 연구[2], 유곽의 도입과 정착과정을 지역 관점에서 조사한 연구[3], 식민지 조선의 다양한 표상 중에서 사진 속의 기생 이미지에 초점을 맞춘 연구[4]와 함께, 지방 도시와 유곽을 다룬 논문으로 군산지역 일본인 사회의 변화 과정의 연구[5], 전북지역의 조선인 권번을 실증적으로 조사한 연구[6], 군산지역 극장과 유곽의 사회적 불온성을 비교한 연구[7] 등으로 나뉘어져 이루어져 왔다. 이들 연구는 조선총독부의 식민정책 속에서 유곽과 그곳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담당했던 역할을 다룬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유곽에 종사한 이들의 기록이 전무하다는 자료적 한

---

1) 유곽는 1900년 10월 일본 부산영사관 시달 제23호 예기영업 및 취체규칙에 의하여 부산 일본전영거류지 부평정 1정목에 특별요리점의 개업 허가가 최초이며 이후 1904년 10월 10일자 경성 영사관령 제3호로 요리점취체규칙이 발포된 이후 일반화되었다. 이후 급속도로 그 수가 늘어나던 유곽은 8·15광복이후 공창폐지와 함께 소멸되지만 사창의 형태로 그 잔영은 남아 있다. 손정목(1996)『일제강점기 도시사회상 연구』 일지사, 447쪽.

2) 손정목 『일제강점기 도시사회상 연구』 (일지사, 1996), 송연옥 「대한제국기<기생단속령><창기단속령>」(『韓国史論』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제40호, 1998)

3) 유승희 「근대 경성 내 유곽지대의 형성과 동부지역 도시화」(『역사와 경계』 82권, 부산경남사학회, 2012), 양미숙 「개항기~1910년대 부산의 유곽도입과 정착과정」(『지역과 역사』제24권, 부경역사연구소, 2009)

4) 권행가(2001)「일제시대 우편엽서에 나타난 기생 이미지」(『한국미술연구소』 12호, 미술사논단), 이경민(2005)『기생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아카이브북스)

5) 이준식(2005)「일제강점기 군산에서의 유력자집단의 추이와 활동」(『東方学志』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김태웅(2009)「日帝下 群山府에서 住民의 移動事情과 階層分化의 양상」(『한국민족문화』 제35권)

6) 황미연(2013)『권번과 기생으로 본 식민지 근대성-일제강점기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민속원.

7) 위경혜(2010)「식민지 개항도시 극장의 장소성-군산지역을 중심으로」『大東文化研究』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계로 인해 제도 속에서 기록된 매체를 중심으로 연구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점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본고는 일본인들이 거류지를 기반으로 조선에 이주하기 시작한 개항 초기부터 유곽이 본격적으로 역할을 시작하는 1920년대 말까지를 시점으로 조선의 유곽을 보편성은 물론 지방 도시 군산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을 중심으로 유곽 문화의 정착을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8)]

우선 기예를 중시하던 조선의 전통적인 기생제도에 새롭게 이식된 일본의 유곽으로 인해 조선의 기생풍속이 사멸되며 화류계를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화류계가 번창하게 된 원인을 밝혀보고자 한다.

둘째, 유곽이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 재조 일본인 사회에서 '황금알을 낳은 거위'로 인식되며 조선 전역에 유곽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지역 도시 군산에서의 유곽의 특수성을 중심으로 조선인과 일본인들에게 유곽은 어떠한 의미를 가졌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군산 신흥동에 있던 유곽의 현황을 사진, 지도 등의 자료를 통해 일본의 전통문화와 조선의 전통문화가 융합되어 가는 과정에 주목하고자 한다.

일제강점기 일본인에 의해 이식된 유곽 문화는 1945년 해방과 함께 단절된 것이 아니며 이후 미군 기지를 근거로 형성된 집창촌을 중심으로 연속되었으며 일부는 현재까지도 진행형으로 그 흔적을 이어나가고 있다. 제국 일본의 식민지 도시 건설에서 유곽이 차지하는 의미는 어떠했으며, 지역 전통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밝혀내려는 본고는 100여년의 근대 한일관계사를 새롭게 조명함은 물론 향후 양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Ⅱ. 전통의 아이콘, 섹슈얼 아이콘

일제 강점기 다대한 양의 조선의 민족문화 자료를 수집했으며 우리의 기생제

8) 일제 강점기 당시 유곽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예기(芸妓), 창기(娼妓), 작부(酌婦)로 나눠 칭하고 있지만 본고에서는 기생이나 매춘부들의 사회를 일컫는 사전적 의미인 화류계 여성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다.

도를 역사적으로 기록한 이능화의『조선해어화사(朝鮮解語花史)』에 의하면 기생제도는 신라의 원화제도(源花制度)를 기원으로 고려의 여악(女樂), 조선의 관기로 이어지고 있다. 조선시대의 관기는 관에 소속되어 노래, 춤, 악기, 시, 서화 등을 익힌 지식인으로 받아들여졌으며 지조와 지략, 의협을 최우선시 했다. 관기들은 잔치의 흥을 위해, 궁중의 의녀, 침녀 등 기능직 여성의 양성, 변방 군인들의 위로, 지방 관청의 사신을 접대를 위해 일했다고 한다.[9] 조선말기로 오면 기예를 전문적으로 공연하는 일패(一牌), 은밀하게 몸을 파는 은근자(隱勤者)인 이패(二牌), 기예가 없으며 매춘을 주로 하는 삼패(三牌)로 그 역할이 다양해졌다. 조선말기 불법으로 규정된 매춘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 또한 볼 수 있다.[10] 하지만 개항 초기 한 일본인은 조선의 기생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 한국 기생의 기예(技藝)는 매우 탁월하며, 제아무리 옥안유요(玉顔柳腰)라고 하더라도 예도(禮道)에 이르지 못하면 기생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스스로도 그러한 상태에서 기생이 되는 것을 치욕으로 여긴다. 일본 예기와 같이 뻔뻔한 예기는 한 명도 없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예도를 습득하는가를 물으며, 첫째 창가를 다음으로 무용, 음악, 시를 적거나 문장을 쓰는 것이다. 그들 중에는 칠언절구 정도는 훌륭하게 소화하는 이도 있다하니 좀처럼 업신여길 수 없다.[11]

매춘만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의 일본 '예기'와 비교하며 기예를 익히고 '예도'를 익힌 조선의 기생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들이야말로 조선 전통문화를 익히며 전수하는 문화수호자로도 평가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이처럼 일본인들에게 기생은 매춘과 거리가 먼 조선의 전통 문화를 대변하는 아이콘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림은 1916년 9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경복궁에서 열린 시정 5주년 기념 조선물산공진회(朝鮮物産共進會)의 공식포스터이다. 박람회는 조선에서 열

9) 이능화(1927)『조선해어화사(朝鮮解語花史)』翰南書林, 17~38쪽.
10) 음녀들이 각처에 많이 있어 음부는 물론하고 어리석은 사나이들을 유인하여 돈들을 빼앗으며…… 무뢰한 배들이 남의 계집아이를 사다가 오입을 가르친다니 이런 일은 경무청에서 마땅히 엄금할 일이더라.『독립신문』1896.7.11.
11)「조선의 기생(韓国の妓生)」『韓半島』제1권제2호, 1904.01

린 최초의 박람회로 산업, 교육, 위생, 토목, 교통, 경제의 영역으로 나뉘어 개최됐으며 조선의 식민지화의 정당성을 피력하기 위한 현대판 엑스포(EXPO)였다. 그림 상단은 조선의 전통적인 모습을 간직한 궁궐이 다소 어둡고 을씨년스럽게 그려져 있는 반면 하단은 일본의 식민지가 됨으로써 근대적인 건축물로 탈바꿈한 경성의 활기찬 모습이 밝게 그려져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조선의 근세와 근대를 대변하는 두 그림을 아우르고 있는 존재는 조선의 기생이다. 이는 조선의 역사가 기생을 통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기생의 치맛자락을 장식하고 있는 국화는 가을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제국주의 일본의 왕실을 대변하는 표상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조선의 전통을 대표하는 아이콘, 기생은 1910년대 후반부터 서서히 외모, 복장, 자세를 중시하며 '남성의 시각적 욕망을 충족하는 성적 대상'[12]의 아이콘으로 변모해 간다. 조선 기생의 이미지의 변화를 이끈 주범은 개항도시를 중심으로 번화하기 시작한 유곽에서 찾을 수 있다.

조선시대부터 일본인들이 수시로 드나들었던 부산은 1876년 개항으로 인해 본격적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조선에 건너 온 일본인들로 넘쳤으며 대개는 남성들이 차지했다. 이는 개항 초기의 상황을 가정하면 부산뿐만 아니라 다른 개항지 또한 동일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1896년 말 한성(漢城)에 거주한 일본인의 직업에서 가장 많이 차지한 이들이 화류계 여성(작부)이었으며 그 수는 총 여성 수 730명 중 140명에 달했으며 5명 중 1명이 일본의 식민지 확장에 나선 남성들과 함께 했다.[13]

다음은 1908년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의 주요 직업을 통감부가 조사해 발표한 자료이다.

---

12) 권혁희(2005)『조선에서 온 사진엽서』민음사, 232쪽.
13) 다카사키 소지, 이규수 옮김(2006)『식민지 조선의 일본인들』역사와 비평사, 71~73쪽.

조선거주 일본인의 주요 직업(1910년)[14]

| 여성 | | | | 남성 | | | |
|---|---|---|---|---|---|---|---|
| 순위 | 직종 | 종사자수 | 총여성 유직자 대비 비율(%) | 순위 | 직종 | 종사자주 | 총 남성 유직자 대비 비율(%) |
| 1 | 예창기작부 | 4,093 | 50.18 | 1 | 상업 | 15,877 | 28.30 |
| 2 | 잡업 | 1,517 | 18.60 | 2 | 잡업 | 12,336 | 21.94 |
| 3 | 상업 | 1,048 | 12.85 | 3 | 공무원 | 9,341 | 16.53 |
| 4 | 육체노동 | 578 | 7.09 | 4 | 공업 | 6,520 | 11.54 |
| 5 | 농업 | 261 | 3.20 | 5 | 육체노동 | 6,251 | 11.07 |
| 6 | 어업 | 213 | 2.61 | 6 | 농업 | 2,518 | 4.46 |
| 7 | 조산원 | 171 | 2.10 | 7 | 어업 | 2,125 | 3.76 |
| 8 | 공업 | 137 | 1.68 | 8 | 교사 | 676 | 1.27 |
| 9 | 교사 | 93 | 1.14 | 9 | 의사 | 397 | 0.70 |
| 10 | 공무원 | 5 | | 10 | 신문잡지기자 | 186 | 0.33 |
| 전 종사자수 | | 8,157 | 100 | | 전 종사자수 | 56,493 | 100 |

표를 통해 조선에 이주한 일본인 남성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직업은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상업이었다. 표에는 기술되어 있지 않았지만 남성 숫자 중 간과해서는 안 될 인원이 조선에 체류하는 일본군 남성들이다. 정확한 인원은 파악할 수 없지만 식민지 조선을 지배하기 위해 상당수의 군인들이 체재했으며, 이들은 화류계 여성들이 상대한 주요 계층들이었을 것이다.

여성의 경우 교사, 공무원, 조산원의 경우처럼 전문적인 직업에 종사하는 이들도 보이지만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이 예창기작부로 50%에 이르고 있다. 표는 예창기작부를 구분하고 있지 않지만 1916년 3월 31일자 경무총감부령 제3호 예기작부치옥영업취체규칙(藝妓酌婦置屋營業取締規則) 및 동 4호 대좌부창기취체규칙(貸座敷娼妓取締規則)에 따르면, 예기(藝妓)는 주석(酒席)에 앉아서 술을 따르고 기예(技藝)를 업으로 하는 자로 조선의 기생과 비슷했으며, 창기(娼妓)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에게 성(性)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자로 명기하고 있다.[15] 창기가 유곽에 감금된 채 생활하며 폐업, 이주, 이동의 자유를 제한받았던데 비해 작부(酌婦)는 유곽에 소속되어 있지 않았으며 폐업,

14) 권숙인(2014)「식민지 조선의 일본인 화류계 여성-한 게이샤 여성의 생애사를 통해 본 주변주 여성 '식민자'」『사회와 역사』, 제103집, 한국사회사학회, 171쪽, 재인용.
15) 조선총독부 관보, 제3297호, 1916.8.7, 61쪽.

이주, 이동의 자유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총독부의 이러한 분류 규정이 화류계의 불문율은 아니었음을 다음 인용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 예기는 예를 파는 자이고 창기는 몸을 파는 자라는 정의는 있으나 요즘 세상에는 예기와 창기가 구별되지 않는다. 단지 창기는 일정한 유곽 내에 거주하면서 몸을 팔고, 예기는 요리점에서 몸을 판다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중략) 한쪽은 새장의 새로, 한쪽은 자유롭게 풀어두는 것이다. [16]

1912년부터 1941년까지 매월 발간하며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최장수 잡지로 평가받고 있는 『조선급만주(朝鮮及滿洲)』에 게재된 1915년 기사「경성 백면상(京城百面相)」은 예기, 창기, 작부에 대한 총독부의 정의와는 달리 일반인에게는 그들이 일하는 장소의 차이만 있을 뿐 별 차이 없이 일반인들에게 통용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다음은 조선에서 일했던 화류계 여성들의 추이를 시대별로 분류한 표이다.

화류계 종사 조선인・일본인 규모[17]

| | 직종 | 일본인 | 조선인 | 합계 |
|---|---|---|---|---|
| 1920 | 예기 | 1,336 | 1,224 | 2,560 |
| | 창기 | 2,289 | 1,400 | 3,692 |
| | 작부 | 705 | 868 | 1,573 |
| 1930 | 예기 | 2,156 | 2,274 | 4,430 |
| | 창기 | 1,833 | 1,370 | 3,205 |
| | 작부 | 442 | 1,241 | 1,685 |
| 1940 | 예기 | 2,280 | 6,023 | 8,305 |
| | 창기 | 1,777 | 2,157 | 3,934 |
| | 작부 | 216 | 1,400 | 1,616 |

조선 총독부는 예기, 창기, 작부를 경찰의 규제와 감독을 받는 업종으로 분류했으며 1910년부터 전황의 악화로 유곽을 규제하기 시작한 1942년까지 화류계 여성을 민족별로 집계하고 있다. 위 표에서 일본인뿐만 아니라 조선인도 시대의

16) 「京城百面相」『朝鮮及滿洲』제99호, 1915.10.
17) 『조선총독부 통계연보』각년판, 하시야 히로시(2005)『일본제국주의, 식민지 도시를 건설하다』모티브북, 104쪽, 재인용.

흐름에 따라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작부의 경우, 일본인들은 감소하고 있으며, 조선인의 경우는 변함없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1940년, 조선인의 예기수가 1930년대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1937년 중일전쟁으로 본격적인 전시체재로 들어감으로써 더욱 가혹해진 일본의 착취는 농촌의 궁핍으로 이어져 많은 수의 조선인 여성이 화류계로 들어가게 된 것을 반증하고 있다.

그렇다면 화류계에 들어온 여성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1924년 동아일보의「朝鮮의 藝娼妓數」에 의하면 조선의 화류계에서 일하는 일본인 여성들의 경우 규슈(九州)출신이 두드러졌다고 보도하고 있다.[18] 이는 일본에서도 험난한 산지와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지형적 조건으로 인해 경제적 환경이 빈약했던 규슈지방 출신 여성들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조선을 선택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1928년 동아일보사의 조사에서는 흥미로운 사항들을 접할 수 있는데 화류계에 들어오게 된 계기를 간략하게나마 기술하고 있다. 화류계 조선여성(3,587명) 중에서는 '처녀'로 있다고 온 이가 1,100명, 결혼했다 버림받은 자가 636명, 농사 짓던 여성이 504명이었으며, 일본여성(4,224명) 중에서는 가사 노동종사자가 1,006명, 이미 일본에서 유곽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던 여성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19] 신문은 조선과 일본의 여성들이 화류계에 들어오게 된 계기를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지 않지만 일본에서는 가미무라 유키아키(上村行彰)에 의해 조사가 되었다. 1918년 일본의 오사카 유곽지역에서 일하는 여성 809명을 대상으로 화류계에 종사하게 된 계기를 분석한 가미무라에 의하면 1, 가난은 집안 살림을 위해(364명) 2, 부모의 사망과 가족의 병원비를 위해(160명) 3, 자신이 빌린 빚을 갚기 위해(101명) 4, 가족의 교육을 돕기 위해(86명) 5, 몰락한 집안을 돕기 위해(55명) 6, 육아비용을 위해(29명) 7, 부모가 유곽을 하고 있어서(10명) 8, 본인의 희망(4명)으로 유곽으로 들어왔다고 말하고 있다.[20] 부모의 직업을 가업으로 물려받은 경우와 본인의 희망으로 유곽에 들어온 여성을 제하면 대부분의 일본 여성이 빈곤한 경제적 조건으로 인해 유곽에 들어온 것은 조

18)「朝鮮의 芸娼妓数」『동아일보』1924.5.9, 2면.
19)「우슴 팔고 울음 사며 그늘에 자라는 万余朶花」『동아일보』1928.11.14, 2면.
20) 上村行彰(1918)『売られ行く女』大鐙閣, 218~220쪽.

선과 같다. 일본의 일부 남성 관료들이 제국의 식민지 확장이라는 정치적인목적을 위해 조선에 왔지만 이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남성들이 경제적인 풍요라는 현실적인 목적을 위해 조선에 이주했으며 이들과 함께 한 것이 화류계 여성이었다. 화류계 여성들은 조선의 개항지를 중심으로 이주하기 시작했으며 1899년 군산의 개항이후 지방으로 활동의 범위를 넓혀 나갔다.

## Ⅲ. '쌀의 군산'과 일본인, 유곽

군산의 개항과 영사관 업무를 담당했던 이사청(理事廳)의 개설(1906), 드넓은 호남의 평야지대에서 생산된 쌀을 일본으로 수송하기 위해 건설된 전주와 군산을 잇는 신작로 건설(1908), 군산과 이리간 철도개설(1912)로 근대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한 군산에 수많은 일본인들이 이주하기 시작한다. 군산부에서 편찬한『군산부사』에는 개항 이후부터 1910년까지 군산부에 체재한 일본인들의 숫자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개항이후~1910년 군산부의 인구[21)]

| | 조선인 | | 일본인 | | 외국인 | | 계 | |
|---|---|---|---|---|---|---|---|---|
| | 호수 | 인구 | 호수 | 인구 | 호수 | 인구 | 호수 | 인구 |
| 1899 | 150 | 511 | 20 | 77 | - | - | 170 | 588 |
| 1900 | 253 | 780 | 131 | 422 | 8 | 24 | 392 | 1,226 |
| 1901 | 320 | 921 | 171 | 472 | 19 | 56 | 510 | 1,449 |
| 1902 | 395 | 1,300 | 189 | 569 | 21 | 63 | 603 | 1,932 |
| 1903 | 438 | 1,811 | 302 | 1,225 | 25 | 78 | 765 | 3.114 |
| 1904 | 623 | 2,113 | 361 | 1,262 | 22 | 73 | 1,006 | 3,448 |
| 1905 | 739 | 3,451 | 421 | 1,620 | 35 | 85 | 1,195 | 5,156 |
| 1906 | 825 | 2,835 | 569 | 2,050 | 40 | 96 | 1,434 | 4,981 |
| 1907 | 831 | 2,903 | 796 | 2,956 | 42 | 128 | 1,669 | 5,987 |
| 1908 | 469 | 1,494 | 836 | 3,060 | 39 | 131 | 1,344 | 4,685 |
| 1909 | 1,364 | 5,466 | 813 | 3,220 | 32 | 96 | 2,209 | 8,782 |
| 1910 | 896 | 3,830 | 904 | 3,448 | 25 | 95 | 1,825 | 7,373 |

21) 群山府(1935)『群山府史』, 18~19쪽.

우선, 1899년 개항당시 511명에 불과하던 조선인은 꾸준히 증가하다가 1906년 한차례 감소를 보이다 1908년 급격히 감소한다. 이는 군산 주변에서 반일 운동을 전개하는 의병 및 화적들과, 이들을 무차별적으로 진압하려는 일본 경찰 및 군대의 충돌을 우려하여 군산에 거주하던 조선인들이 이 지역을 떠나 전주 등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것에 기인한다.[22] 군산을 떠났던 조선인들은 반일 운동이 잠잠해진 이듬 해, 다시 군산으로 대량 유입되었다.

당시 군산에는 일본인 이외에도 소수의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개항이전부터 살기 시작했던 중국인들과 호남지역 선교를 위해 입국한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 전킨(전위렴)과 드루(유대모) 의료 선교사와 같이 이들이다. 군산에 거주한 외국인 수는『군산부사』의 자료와는 약간의 차이가 보이지만 통감부의 자료에 의하면 1908년 1월, 중국인 136명, 미국인 7명이었다.[23] 이들은 신흥동 일본인 거류지가 조성되기 이전까지 외국인 거류지에서 일본인들과 함께 생활하게 됐지만 일본인수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숫자였다. 이미 1907년 일본인의 숫자가 3,000명을 넘기 시작한 군산과는 달리 조선시대 호남지역을 관할하는 감영이 있던 전주는 1908년 조선인이 14,329명, 일본인이 577명으로, 1915년이 되어서야 3,000명의 일본인이 살게 되었다.

1909년 군산에 거류한 일본인의 직업 분류를 보면 상업(905명), 농업(382명), 예창기작부(208명), 공업(183명), 의사(26명), 산파(14명), 종교인(11명), 신문 및 잡지기자(7명), 변호사 및 소송대리인(4명)등이었다. 이중 여성의 경우 예창기작부(208명), 상업(113명), 잡업(89명), 산파(14명), 무직(14명), 농업(9명), 교원(5명), 기타(4명)으로 총 456명의 여성이 군산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었다.[24] 일본인 직업여성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던 예창기작부는 1907년 군산의 신흥동에 들어선 유곽을 터전으로 삼았으며, 군산의 예창기작부 수는 같은 시기 경성(1,068명), 부산(819명), 원산(281명), 청진(276명), 인천(258명), 평양(255명) 다음이었으며 목포(177명), 대구(198명)에 비해 많은 수였다.

---

22) 당시 군산 경찰서는 관내 의병 출몰 수를 1,504명, 화적 8,330명으로 집계했으며 대대적인 진압에 나섰다.『황성신문』1908.1.11, 김태웅(2009)「日帝下 群山府에서 住民의 移動事情과 階層分化의 양상」『한국민족문화』제35권, 7쪽, 재인용.

23) 統監府地方部(1909)『居留民団事情要覧』統監府, 105쪽.

24) 朝鮮総督府(1911)『朝鮮総督府 統計年報 第4次』朝鮮総督府, 85~90쪽.

이처럼 군산은 물론 조선에 체재한 재조 일본인 여성 중, 화류계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이유는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인가. 이는 1900년대 초부터 조선 전국에 생겨나기 시작한 유곽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음 글은 일제강점 초기의 재조 일본인 사회의 모습을 묘사한 글로 유곽이 번성한 원인을 간접적으로나마 엿볼 수 있다.

> 한인사회에는 수많은 기정(旗亭, 요리점, 주막)의 깃발이 늘어서 있고 또한 사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원이 없으며 도서관, 평민적 클럽(倶樂部)이 없다. 따라서 기정을 유일한 오락장으로 여겨 위안의 장소로 삼고 결국 기정과 매춘부가 번창하게 된다. 부인이 포목전에 출입하며 의복을 장식하는 것을 유일한 즐거움으로 삼는 것과 같다.[25]

작가가 지적하는 1910년 당시 조선인 사회의 '기정'과 '사원'은 우리의 주막문화와 성당, 교회, 향교 등으로 대표되는 종교문화를 말하고 있는 듯하다. 일본의 근대문화를 대표하는 공원, 도서관, 클럽의 부재를 대신할 남성의 '유일한 즐거움'으로 '기정'과 '매춘부'를 선택한 작가의 논리적 비약을 지적해야겠지만 개항 초기 정치적, 경제적으로 식민지 지배를 위해 남성을 조력했던 화류계 여성들은 유곽의 '번창'으로 서서히 집단화되어 간다.

유곽의 조성은 1902년 특별요리점 형태로 허가를 받은 부산을 시작으로 인천, 원산, 경성, 군산, 목포 등 일본인 거류민단이 조성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유곽에서 일하는 화류계 여성들은 불특성 다수의 남성을 상대로 매춘을 통해 화대(花代)를 받음으로써 공식화된 직업여성으로 자리매김 되었으며 그녀들의 일자리였던 유곽은 초기 재조 일본인 경제인들에서는 최고의 부를 의미했음을 다음 글을 통해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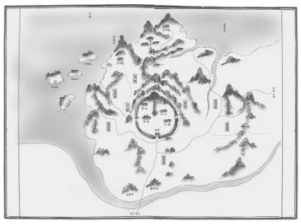
> 당시(1904년-인용자)의 거류민단에서 자제들의 교육비를 염출한 재원이 없어서 민단 간부들이 숙의한 결과 재원염출방법으로 이 일대의 토지를 평당 80전 값으로 불하를 받아 월 7~30전의 지료를 과하여 유곽허가를 한 것이 그 발단이었다. 당

25) 「在韓邦人と趣味」『朝鮮』 제4권제5호, 1910.1, 日韓書房.

시 연간 약 1만7~8천원의 지세를 낸 것이 최초의 세액이었다. 오늘 날에 와서는 영업세·가옥세·지세 등을 합하여 연 5만 6~7천원의 세금이 이 신정 일대에서 거둬들이게 되었으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셈이 되었다. 26)

일제 강점기 경성은 물론 조선의 대표적인 유곽이었던 신마치(新町, 현 쌍림동)를 개척해 막대한 부를 축척하며 성공한 재조선 일본인 중 대표적인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 아카하기 요사부로(赤萩與三郎)27)의 회고록에 의하면, 유곽을 일본인 거류민단의 재원확보를 위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평가하고 있다. 유곽의 개척은 일본인들 사이에서도 경쟁자 없는 새로운 시장이었다 할 수 있다. 이렇듯 유곽의 번성은 화류계 여성을 필요로 하며 수많은 일본 여성을 조선으로 불러 모으는 계기를 마련했다.

대도시 경성과 부산의 일본인 거류지를 중심으로 번성한 유곽과 비교해 근대도시로 새롭게 탈바꿈하기 시작하는 지방도시 군산의 유곽 지역의 형성은 어떠했는지 다음 그림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변주승역(2009)
여지도서 45 전라도Ⅱ』 디자인 흐름.

群山府(1917)『群山府勢要覧』

伊藤光三郎(1926)
『群山案内』群山築港起工祝賀会記念係

조선 후기 인문지리서의 모범으로 평가받고 있는 『여지도서(與地圖書)』(1757~1765)는 일제강점기 당시 군산지역에 해당하는 옥구(沃溝)를 "바닷가

26) 赤萩与三郎(1930.10)「遊廓街二十五年史」『朝鮮公論』.
27) 아카하기 요사부로(1872~?) 일본 이바라키현 출생으로 육군 특무조장으로 전역하였으며 1902년 조선의 경성에서 백미, 담배 가게를 시작으로 1904년 당국으로부터 신마치(新町)에 유곽의 설치를 허락받고 「第一楼」를 시작으로 토지를 매수하며 부를 축적, 1919년에는 활동의 범위를 만주, 중국에까지 펼쳤다.

모퉁이 후미진 고을이지만 인심은 착하고 꾸밈이 없다"[28]고 기록하고 있다. 조선시대 군산은 군산진(群山鎭)의 군사적 역할과 함께 조창 기능만을 유지한 '후미진 고을'이었으며 일반인들의 삶의 터전은 현재 은파유원지 뒤편의 평야지대를 축으로 이루어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1899년 5월 1일 고종의 칙령으로 군산이 개항함으로써 '바닷가 모퉁이'였던 군산진 부근이 일본인 거주지로 새롭게 개발되게 된다. 일본에 의해 새롭게 조성된 군산은 유교적 영향으로 은적암(隱寂庵)과 같은 사찰들이 산 속에 위치해 있던 우리의 전통적 지리환경에도 변화를 가져와 사찰과 신사를 주거지역 가까이 배치하는 일본의 지리적 환경이 군산에 정착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현재 남아있는 국내 유일의 일본식 사찰인 금강사(현, 동국사)와 안국사(현, 흥천사) 등 8곳의 일본 사찰이 일본인 거류지를 중심으로 세워졌으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30년대 군산을 상세하게 묘사한 유일한 자료인 채만식의 『탁류』는 일본인 거류지와 조선인 거류지를 비교하며 다음과 같이 그리고 있다.

> 개복동, 구복동, 둔뱀이, 그리고 이편으로 뚝 떠러져 정거장뒤에 잇는 『스래』(京浦里) 이려한 몃곳이 군산의인구 칠만명 가운데 륙만도 넘는 조선사람들의거의 대부분이 어깨를 비비면서 옴닥옴닥 모여사는곳이다. 면적으로치면 군산부의 몃십분지일도 못되는땅이다.
>
> 그뿐만아니라 정리된 시구(市區)라든지 근대식건물로든지 사회시설이나 위생시설로든지, 제법 문화도시의 모습을 채리고 잇는 본정통이나, 전주통이나, 공원밋일대나, 또 넌즛이 월명산(月明山)아래로 자리를잡고잇는주택지대나, 이런데다가 벗대면개복동이니 둔뱀이니하는 한세기나 뒤저보인다. 한세기라니 인제 한세기가 지난뒤라도 이 사람들이 제법 고만큼이나 문화다운 살림을 하게 되리라 십지안타.
>
> 정주사는 (생략) 개복동(開福洞)복판으로 들어섯다. 예서부터가 조선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29]

채만식은 신흥동 일대 일본인 거류지를 근대식 건축물로 이루어진 "문화다운 살림"이 가능한 곳으로 그리고 있다. 하지만, 토담집으로 즐비했던 개복동 조선

---

28) 변주승역(2009) 『여지도서 45 전라도Ⅱ』 디자인 흐름, 311쪽.
29) 채만식(1997)『탁류』서울대학교 출판부, 25쪽.

인 거주 구릉지역 일대는『군산안내』의 지도에서 볼 수 있듯 도로정비는 물론 위생시설, 상하수도 등 사회간접 시설이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은 채 신흥동에 비해 '한 세기나 뒤져'있는 지역이었으며 '한 세기가 지나'더라도 '문화다운 살림'이 불가능한 곳으로 묘사하고 있다. 군산에 새롭게 살기 시작한 일본인 거류자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개복동으로 이주해야 했던 군산인들의 모습은 일제 강점기 조선을 강탈한 일본에 굴하며 끝까지 살아남아야 했던 조선인들의 아픔과 오버랩된다.

군산에 형성된 일본인 거류지는 조선의 다른 기타 개항장의 거류지와는 사뭇 다른 형태로 조성되었다. 이는 부산, 인천, 마산의 일본인 거류지의 경우, 조선인이 거주하지 않았던 지역을 개발해 조성했던데 비해, 군산의 경우는 항구에 가깝던 기존 조선인 거류지를 일본인들에게 양도한 것이다. 거류지역 일대는 대한제국으로부터 평당 30전에 불하받아 일본인들에게 10~20원에 낙찰됐으며 경매가격이 80원까지 올랐다고 한다. 이로 인해 조선인들은 평야지대에서 고지대인 개복동 인근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군산이 조운제도(漕運制度)와 군사 중심지의 기능을 상실하며 붕괴하는 과정에서 개항으로 인해 외국인(일본인) 조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30]

일본인 거류지 정비 후인 1907년 조성된 유곽지역은 당초 후보지로 신흥동 산수정(현 명산동), 팔마산 동쪽 평지(현 경장리, 이후 1927년 경마장 설립), 경포리 부근(현 군산고속버스 터미널 부근) 세 곳이 유력했다. 하지만 팔마산 일대는 토지가 드넓고 일본인 거류민단의 계획대로 토지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은 있었으나 일본인 거류지와 멀리 떨어져 있었으며, 경포리 부근은 수륙교통의 편리함은 있으나 매축(埋築), 도로하수 등 기반시설의 미정비로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 약점이 있었다. 신흥동은 일본인 거류지 인근으로 접근이 용이했으며 기반시설 또한 잘 정비되어 있었지만 비싼 토지 매입금을 거류민단으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었다. 세 후보지를 소유한 일본인 토지 경영자들의 유곽 유치를 위한 알력 싸움 중, 당시 군산 일본인 사회의 리더격이었던 사토 마사지로(佐藤政次郎)[31]가 자신이 소유한 신흥동 부지 6,000여 평을 유곽부지로 무상 기증함

30) 군산시사편찬위원회편(2000)『群山市史 上卷』군산시, 136쪽.
31) 사토 마사지로(佐藤政次郎, 1865~1936)는 에히메현에서 태어났으며 고향에서 소학교 교원

으로써 유곽은 신흥동으로 결정되었다.[32] 이로써 신흥동은 호남지역에서 가장 큰 유곽지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사토는 자신이 소유한 신흥동 일대의 부지를 유곽부지로 무상 기증했지만 이는 그가 신흥동에 소유한 토지의 극히 일부로 유곽 일대를 조금 벗어난 지역이 주택지로 개발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33]

신흥동 유곽 조성 당시의 규모에 대해서는 자료의 미비로 인해 정확한 규모를 가늠할 수 없지만 1930년 일본유람사(日本遊覽社)에서 간행한『전국유곽안내(全局遊廓案內)』조선편 중 군산의 신흥동 유곽지역에는 일본인 유곽 8곳에 61명의 여성이, 조선인 유곽 3곳에 26명의 여성이 종사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34]『전국유곽안내』에서 밝히고 있는 조선 유곽이 있었다고 하는 신흥동이 조선인 유곽지역이 있던 개복동을 신흥동으로 아울러서 기술한 것인지는 앞으로 밝혀야 될 과제이다.

## Ⅳ. 신흥동 일본인 유곽

1930년대 당시, 군산 신흥동에 있던 유곽은 칠복루(七福樓), 방본루(芳本樓), 태평각(太平閣), 산월루(山月樓), 대월루(大月樓), 송월루(松月樓), 대화루(大和樓), 상반루(常盤樓), 군산루(群山樓), 송학루(松鶴樓), 명월루(明月樓), 평남루(平南樓) 등이며 유곽의 이름만으로 추정하면 송학루, 평남루는 조선인 유곽으

---

을 역임한 후, 도쿄의 게이오의숙(慶応義塾)을 졸업했다. 오사카 마이니치신문에 입사(1907), 경제부 기자로 일하던 1903년 가을, 일본헌정본당(日本憲政本党)의 두 거물인 오이시 마사미(大石正巳), 이누카이 쓰요시(犬養毅)와 함께 청나라와 조선의 경제상황을 취재하기 위해 처음으로 조선을 방문했다. (황성신문, 1903년 9월 30일 4면) 이후, 1904년 7월 신문사를 사직한 후 일가를 이끌고 조선으로 이주했으며 군산에서 금융업과 함께, 토지매수, 주택과 농장경영 등 다방면에서 활동했다. 당시 갈대밭이었던 신흥동 일대를 사들인 사토는 이후 이곳이 일본인 주택지와 유곽지로 선정됨으로써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그는 군산일본인 사회의 핵심 멤버로 일하며 축항문제, 철도부설, 중학교 설립, 군산 고등여학교 설립을 위해 거금을 기부했다. 鎌田正一(1936)『朝鮮の人物と事業. 第1輯, 湖南篇』実業之朝鮮社出版部, 253쪽.

32) 김종규(2001)『군산역사 이야기』나인, 25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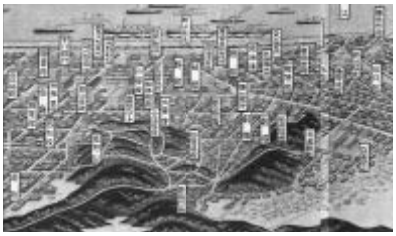
33) 釜山日報群山支社編(1928)『開港三十周年紀念 群山』釜山日報群山支社, 24쪽.

34) 日本遊覧社(1930)『全局遊廓案内』468쪽.

로 보인다. 다음 자료를 통해 당시 군산의 신흥동 일대 유곽을 엿보기로 하자.

사진 엽서, 群山山手遊廓

『群山府区域拡張地図』,19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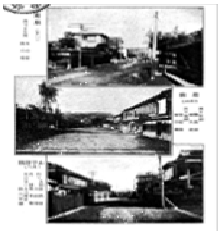
『群山大観』, 中田甚吉

중앙의 지도는 1933년 1월 1일, 군산일보가 신문독자들에게 부록으로 제공한 『군산부 구역확장지도』로 신흥동의 유곽지역에 16곳의 유곽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유곽지역의 도로 건너편에는 1930년대 초반부터 생겨나기 시작한 카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왼쪽 사진은 당시 군산을 소개한 사진엽서 '군산야마테 유곽(群山山手遊廓)' 으로 유곽지역은 1933년 모습과 동일하나 카페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1932년 이전의 신흥동 일대의 모습으로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사진은 신흥동 일본인 주거지역과 유곽사이가 드넓은 공터로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신흥동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이전인 1910년대 후반에서 20년대 초반의 모습으로 보인다.

이렇듯 사진과 지도, 문서를 기반으로 살펴본 군산의 유곽은 신흥동에 모두 조성되어 있는 듯 보이지만 오른쪽의 조감도는 군산의 유곽이 신흥동을 벗어난 지역에도 존재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조감도 『군산대관(群山大觀)』은 당시 일본과 조선의 지역 조감도를 전문적으로 그렸던 나가타 진키치(中田甚吉)의 작품으로 1930년대 후반의 군산 시가지를 그린 작품이다. 조감도는 신흥동 유곽지역을 '유곽'으로 표기했을 뿐 상세한 기술은 생략하고 있다. 하지만 유곽지역에서 벗어난 신흥동 일본인 거류지역에 화월(花月), 다이요시(大よし), 신월(新月)을, 조선인이 주로 거류했던 개복동 인근에는 동해루(東海樓), 명월관(明月館), 소화권번(昭和券番)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일본인 주거지역 가까이에 있던 화월, 다이요시, 신월은 고급 요정으로 짐작된다. 명월루와 명월관은 신흥동(명월루)과 개복동(명월관)에 있던 것으로 미뤄 각각 일본인과 조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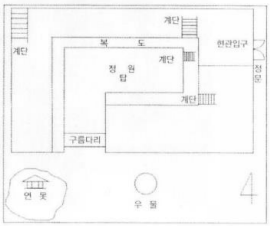
을 상대했던 별개의 유곽임을 알 수 있다.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는 소규모의 조선인 유곽까지 포함한다면 일제강점기 '쌀의 군산'에는 대단히 많은 수의 유곽과 함께 화류계 여성들이 일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당시 군산에 있던 유곽의 모습을 사진 자료 등을 통해 알아보기로 한다.



保高正記編(1925)
『群山開港史』群山府

1930년대 신흥동 유곽




김종수・김민영외(2012)
『새만금도시 군산의 역사와 삶』 선인

1925년 군산부에서 발간한『군산개항사(群山開港史)』에 실린 9곳의 유곽 사진은 평지에 드넓게 새로 생긴 도로를 사이에 양쪽으로 늘어서 있다. 대부분의 유곽이 2층이었던데 비해 '소나무집(松の家)'이 3층이었다는 설명으로 미뤄보면 군산은 물론 조선에서도 규모가 꽤 규모가 큰 이름난 유곽 중 하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앙의 사진은 다다미식 일본 방에 18명의 화류계 여성 속에 5명의 남성이 무엇인가를 기념하기 위해 찍은 사진으로 보인다. 남성들의 머리모양과 복장으로 보아 이들이 일본의 전통 예능인 스모선수들과 관계자로 보이며 군산에서 스모경기를 치룬 후 연회를 연 것으로 보인다. 군산 동국사 주지인 종걸스님이 수집해 필자에게 제공한 이 자료는 당시 유곽의 내부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왼쪽 끝자락에 앉아있는 여성 앞에 놓인 태극문양의 부채가 눈에 띈다. 이는 여성이 춤을 위해 마련한 도구인지, 아니면 손님을 위한 도구로 조선의 전통부채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인을 상대하는 유곽에서 조선의 전통적인 부채를 사용하듯 일본의 전통적인 유곽문화에 조선의 문화가 서서히 이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유곽 문화의 변화는 유곽 내의 손님에

대한 접대방식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우선, 동시에 여러 손님을 상대하는 일본의 유곽문화와 달리 조선의 유곽에서는 정해진 시간에는 반드시 한 명의 손님만을 상대했다. 한 언론인은 '조선의 기생은 한 명의 고객을 모실 때는 절대로 다른 고객과 있어서는 안 된다'[35]라는 규정을 들며 일본인들에게 조선의 기생문화의 특징을 소개하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화류계 여성이라도 일부종사와 함께 수절, 열녀를 여성의 근본으로 삼는 조선의 뿌리 깊은 유교문화로 인해 일본 전통적 유곽문화에 일부 변화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오른쪽은 1949년부터 2002년까지 군산 화교 소학교로 사용되었던 유곽 칠복루의 내부를 기억하고 있던 화교 관계자의 증언을 토대로 정리한 도면이다. 칠복루는 1925년 일본에서 고급 목재를 가져와 1, 2층 각 90평의 규모로 지었다고 하며 유곽 내부에는 연못, 우물이 있었다. 또한 ㅁ자 형태의 건물 정중앙에는 일본식 정원과 탑이 존재했으며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만도 다섯 곳이 있을 정도의 규모로 방과 방 사이가 구름다리로 연결되어 있는 것 또한 특이하다 할 수 있다.

군산의 유곽 수와 규모면에서도 알 수 있듯 1930년대를 전후로 조선 전역에 걸쳐 최고의 경제적 호황을 누리던 유곽은 서서히 도시경관 정비를 이유로 서서히 외곽으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군산 또한 유곽지로 번성하던 신흥동 일대에 일본인 주택지가 본격적으로 들어서면서 유곽의 이전문제가 공론화되었다. 이는 군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은 물론 조선의 모든 유곽지에서 일어나던 현상이다. 이러한 시대 상황 하에 군산의 신흥동 유곽도 중심 주거지에서 다소 거리를 둔 둔율리(둔뱀이)와 송곡리의 10,000여 평의 부지 중 한 곳을 선정해 이전을 추진 중이었던 듯 하다.[36] 하지만 이전 계획은 성사되지 않았으며 1945년까지 유곽은 신흥동에 잔존했다. 이 이유에 관해서는 1926년 일본의 오사카에서 있었던 마쓰시마 유곽의옥사건(松島遊廓疑獄事件)에서 힌트를 얻고자 한다.

마쓰시마 유곽의옥 사건은 1869년 오사카에 조성되어 일본최대의 유곽지역으로 꼽힌 마쓰시마 유곽지의 이전을 둘러싼 복수의 부동산 회사로부터 여야당

35) 平壤観光協会(1938)『柳京の話』平壤観光協会, 44쪽.
36) 保高正記編(1925)『群山開港史』群山府, 317쪽.

정치인 3명이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은 사건을 일컫는다. 당시 총리대신이 재판에서 심문을 받는 등 이로 인해 와카쓰키 레이지로(若槻礼次郎, 1866~1949)내각의 총사퇴까지 이끈 일본 화류계 최대의 스캔들로 평가되고 있다. 이후 이전은 흐지부지해졌으며 마쓰시마 유곽은 1958년 매춘방지법시행으로 공식적으로는 폐지되었지만 요정가로 자리매김하며 현재까지 매매춘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다. 군산은 물론 조선의 다른 기타 지역의 유곽이전 문제가 실행되지 못한 원인에는 조선판 마쓰시마 유곽의옥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과 함께 유곽지역을 통해 막대한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하고 있던 이들의 조직적인 영향력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 Ⅴ. 결론

1907년 조성된 군산의 신흥동 유곽은 한 차례 이전 문제로 혼란을 겪기도 하지만 1945년까지 영업을 유지했으며 해방 이후로는 역할을 변신, 시장으로 거듭났으며 현재, 명산시장으로 서민들의 삶과 깊숙이 관계하고 있다.

1902년대 부산을 시작으로 들어서기 시작한 유곽은 제국 일본의 식민지 확장과 함께 하며 조선, 중국, 만주는 물론 남양군도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에 이식되었다. 조선 전역에 만들어진 유곽은 기예를 중시했던 조선의 기생제도를 변질시키며 매춘의 번창을 주도했음을 살펴보았다. 조선인 기생들이 주축이 된 각 지역 권번은 조선의 전통문화를 수호하고자 했던 움직임 또한 엿볼 수 있지만 권번보다 대중적이었던 유곽은 조선 전역을 세력권에 둠으로써 식민지 유곽문화를 주도했다.

유곽을 중심으로 형성된 화류계 여성들은 경제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로 유곽을 선택했다. 또한 화류계 여성들은 제국 일본의 권력을 등에 업고 식민지 '조선의 밤'을 지배했다. 1900년대 초반 '블루오션'이었던 유곽산업은 일부 재조일본인들에게 막대한 경제적인 이익을 안겨 주었으며 이들 위해 화류계 여성들의 희생을 강요했다 할 수 있다.

신흥동 유곽의 형성을 통해 군산의 화류계가 대도시에 버금갈 정도의 유흥문화를 이루었음을 살펴보았으며 유곽 문화가 조선과 일본의 문화가 융합된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음을 밝혔다. 이는 제국 일본이 식민지 조선의 전통문화를 강제적으로 말살하며 일본문화화 하려했던 다른 문화와는 상이하게 문화적인 이유와 함께 실질적으로는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유곽문화가 융합된 것이다.

군산 신흥동 일본인 거류지와 유곽지역은 조선인들이 살아왔던 삶의 터전을 빼앗았으며 이는 일본에 강탈당한 '조선의 축소판'이었다 할 수 있다. 신흥동 일본인 거주 지역과 개복동 조선인 거주 지역으로 분리시킨 지리적 차별은 유곽의 형성에서도 그대로 드러나 신흥동 일본인 유곽과 개복동 조선인 유곽으로 나누어졌다. 이러한 차별은 전후 개복동 조선인 유곽 지역은 그대로 남아 2002년 '개복동 화재 사건' 으로 이어졌으며 성매매 업소 여성 14명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이어졌다.

제국 일본의 식민지 도시 건설과 전통적 사회의 변화를 군산의 유곽을 중심으로 살펴본 본고는 식민지 도시 중 군산이야말로 제국 일본의 식민지 도시 건설의 모델을 보여주었으며 현재의 군산 지역이 '부끄러운 과거의 역사'를 음미하는 역사의 현장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

군산의 조선인 기생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소화권번과 대정권번, 자료의 미비로 인해 조선인 유곽을 상세히 다루지 못한 점은 향후 과제로 삼으려고 한다.

## 참고문헌

군산시사편찬위원회편(2000),『群山市史 上卷』, 군산시.

권숙인(2014),「식민지 조선의 일본인 화류계 여성-한 게이샤 여성의 생애사를 통해 본 주변주 여성 '식민자'」,『사회와 역사』 제103집, 한국사회사학회.

권혁희(2005),『조선에서 온 사진엽서』, 민음사.

김영정・소순열・이정덕・이성호(2006),『근대 항구도시 군산의 형성과 변화-공간, 경제, 문화』, 한울아카데미.

김종규(2001),『군산역사 이야기』,나인.

김종수・김민영 외(2012),『새만금도시 군산의 역사와 삶』, 선인.

김태웅(2009),「日帝下群山府에서 住民의 移動事情과 階層分化의 양상」,『한국민족문화』 제35권.

다카사키 소지, 이규수 옮김(2006),『식민지 조선의 일본인들』, 역사와 비평사.

변주승역(2009),『여지도서 45 전라도Ⅱ』, 디자인 흐름.

송연옥(1998),「대한제국기의 <기생단속령><창기단속령>-일제 식민화와 공창제 도입의 준비과정」,『韓国史論』제40호,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서지영(2005),「식민지 시대 기생연구1-기생집단의 근대적 재편 양상을 중심으로」,『정신문화연구』 제28권제2호,

손정목(1996),『일제강점기 도시사회상 연구』 일지사.

양미숙(2009),「개항기~1910년대 부산의 유곽도입과 정착과정」,『지역과 역사』 제24권, 부경역사연구소.

유승희(2012),「근대 경성 내 유곽지대의 형성과 동부지역 도시화」,『역사와 경계』 82권, 부산경남사학회.

위경혜(2010),「식민지 개항도시 극장의 장소성-군산지역을 중심으로」,『大東文化研究』,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이가혜(2014),『초기 재조일본인잡지의 기사 및 유곽물(遊廓物) 및 기사에 나타난 재조일본인 유녀의 표상 : 韓半島 朝鮮之実業 朝鮮(及満洲)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이경민(2005),『기생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아카이브북스.

이능화(1927),『朝鮮解語花史』, 翰南書林.

이준식(2005),「일제강점기 군산에서의 유력자집단의 추이와 활동」,『東方学志』,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채만식(1997),『탁류』, 서울대학교 출판부.

하야시 히로시(2005),『일본제국주의, 식민지 도시를 건설하다』, 모티브북.

홍성철(2007),『유곽의 역사』, 페이퍼로드.

황미연(2013),『권번과 기생으로 본 식민지 근대성-일제강점기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민속원.

赤萩与三郎(1930.10),「遊廓街二十五年史」『朝鮮公論』.
伊藤光三郎(1926),『群山案内』, 群山築港起工祝賀会記念係.
上村行彰(1929),『日本遊里史』, 藤森書店.
_____(1918),『売られ行く女』, 大鐙閣.
鎌田正一(1936),『朝鮮の人物と事業. 第1輯, 湖南篇』実業之朝鮮社出版部.
群山府(1935),『群山府史』, 群山府.
_____(1917),『群山府勢要覧』, 群山府.
日本遊覧社(1930),『全局遊廓案内』, 日本遊覧社.
平壌観光協会(1938),『柳京の話』, 平壌観光協会.
保高正記編(1925),『群山開港史』, 群山府.
吉川萍水(1932),『(裏から覗いた朝鮮)妓生物語』, 半島自由評論社.
「京城百面相」『朝鮮及満洲』 제99호, 1915.10
「韓国の妓生」『韓半島』 제1권제2호, 1904.1
「在韓邦人と趣味」『朝鮮』 제4권제5호, 1910.1, 日韓書房.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24606&CMPT_CD=SEARCH(검색일: 2015.6.30)

Abstract

# 제국 일본의 식민지 도시 건설과 전통 사회의 변화
## -유곽형성과 군산지역 유곽문화의 정착-

이정욱

본고는 조선의 개항 초기부터 유곽이 대중화되는 1930년 전후를 기점으로 조선의 유곽을 보편성은 물론, 지방 도시 군산이라는 지역적 특수성과 함께 유곽 문화의 정착과정을 살펴보았다.

1900년대 초반 '블루오션'이었던 유곽산업은 화류계 여성들을 기반으로 막대한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했다. 일본에 의해 조선 전역에 형성된 유곽은 기예를 중시했던 조선의 기생제도의 변질을 가져왔으며 화류계 여성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였으며 매춘의 번창으로 이어졌다.

또한 조선에 체재한 일본인들에게 유곽은 경제적인 풍요를 의미하던 지역이었으며 지방 도시인 군산의 신흥동 일본인 거류지와 유곽지역의 조성은 조선인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았다. 또한 신흥동 일본인 거주 지역과 개복동 조선인 거주 지역으로 분리시킨 지리적 차별은 유곽을 통해서도 유흥문화의 차별을 도모했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신흥동 유곽의 상황을 사진자료 등을 통해 군산의 화류계가 대도시에 버금갈 정도의 유흥문화를 이루었음을 살펴보았으며 유곽 문화가 한일 양국의 문화가 융합된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음을 밝혔다. 유곽 문화는 제국 일본이 식민지 조선의 전통문화를 강제적으로 말살하며 일본화를 시도했던 다른 분야와는 상이함을 엿볼 수 있었다. 이는 문화적인 이유보다는 경제적인 이유를 우선시했던 유곽문화의 특징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 일본인에 의해 이식된 유곽 문화는 1945년 해방과 함께 단절된 것이 아니며 이후 미군 기지를 중심으로 형성된 집창촌으로 이어졌으며 일부는 현재까지도 '아픈 역사'를 대변하고 있다.

제국 일본의 식민지 도시 건설에서 유곽이 차지하는 의미와 함께, 지역 전통사회에 끼친 영향을 밝히고자 한 본고는 100여년의 근대 한일관계사에서 지역적인 특수성을 새롭게 조명함으로써 향후 한일 양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

Key Words : 유곽, 군산, 기생, 화류계, 식민지 도시, 식민지 문화

Abstract

영문초록 전문기관에서 교정 중.